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법안 관련 기자회견 모두말씀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특검법 문제에 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와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기존의 청와대 입장하고 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점을 떠나서도 재의 요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알고 넘어가야 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국회에서 특검법안 통과할 때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한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의 요구를 하면 결국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

으로도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정당성을 주장하고 다투어 나갈 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저는 국회가 이와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로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룻배를 띄워야 합니까.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부패수사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고, 저는 그 공약에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왜 국회가 그 법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공약한 것을 왜 통과시켜 주지 않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과 안 시키고 필요할 때 이런 특검법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인데, 특검법은 다수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소야대니까 야당이 뭉쳐서 특검법을 자주 만들어 내지만, 앞으로 '여대' 국회가 된다면 정부의 어느 부처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특검법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다수당의 몫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 낼 때에만 특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로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 11월에 국회에 제출해 봤는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그 다음에 법리적인 얘기들은 이미 대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참 좋은 제도인 줄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검이 참 좋은 제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만 편리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이해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특검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두 번만 성과가 있었고 세 번은 완전히 헛일만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고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국가뿐만이 아니고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 놓고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마구 행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진정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